

심층분석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2026.04.26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심층분석보고서: IBK기업은행 금융일반(서울/수도권)

1장: 산업(섹터) 분석

1-1. 사상 최대 이익 뒤에 드리운 '성장 부문 이동'의 그림자

한국 은행업은 이자수익자산 기준 2025년 말 약 3,442조원으로 전년 대비 4.6% 성장하였으며, 2025년 당기 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자이익이 60.4조원으로 전체 영업수익의 약 89%를 차지하고, 비이자이익이 7.6조원으로 26.9%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외형적 풍요 안에는 구조적 변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이자이익 내부에서 외환·파생이익이 6.2조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0.4조원에서 폭증한 사실은, ELS 판매 위축이라는 손실을 고회율·고변동성이 만든 외환 트레이딩 수익이 메우는 일종의 우연적 보전 구조가 형성됐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향후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서면 이 보전 효과는 사라지고, 본업 이자이익의 둔화가 그대로 손익에 반영될 가능성이 큼니다.

ROE는 2025년 7.93%, ROA는 0.59%, NIM은 1.51%로 전년 대비 6bp 축소되었습니다. 이 같은 수익성 둔화는 2024년 10월 한국은행의 첫 기준금리 인하 이후 2025년 5월 2.50%까지 인하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 작동한 결과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권 NIM은 추가 압박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은행업은 자산 성장 부문, 외환·파생 부문, 비은행 자회사 부문이라는 세 가지 부문으로 손익을 다변화하는 방어 모형을 재편 중이며, 이는 단일 금리 수익에 의존하던 과거 구조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1-2. NIM 압박과 외환·파생 수익이 만드는 새로운 손익 구조

이자마진 축소가 단년도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NIM은 2023년 1.65%대에서 2025년 1.51%까지 14bp 감소했고, 정책금리 인하가 변동금리 대출 만기 시점에 도달하면서 추가 5~10bp 압박이 2026년 상반기 중 반영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은행권은 대출 자산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가계대출은 스트레스 DSR과 LTV 규제로 묶여 있어 기업대출 의존도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IBK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본업 강화의 명분과 동시에 자산건전성 위험 확대라는 양면성을 띕니다.

비이자이익 부문의 변동성 또한 우려 요인입니다. 외환 트레이딩 수익은 환율 변동성에 의존하는 구조이므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위안화 환율 정책, 일본 BOJ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분기별 수익이 ±20%까지 진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은행과 IBK 모두 신탁·방카·IB·자산운용 수수료 같은 안정적 비이자수익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기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4대 금융지주는 비은행 자회사(증권·카드·캐피탈·보험)를 통해 비이자 수익 비중을 30%대까지 끌어올렸으나 IBK는 약 15% 수준에 머물러 있어, 비이자수익 다각화 여력이 향후 그룹 수익성을 결정짓는 변수가 됩니다.

1-3. 인터넷전문은행의 전 국민 커버리지 달성과 시중은행의 균열

카카오뱅크 2,586만, 케이뱅크 1,450만, 토스뱅크 1,292만 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 3사 합산 고객은 약 5,300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을 커버하는 수준이며, 2025년 상반기 카카오뱅크 2,637억원, 케이뱅크 842억원, 토스뱅크 404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산점유율은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지만 수익성 지표는 빠르게 시중은행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NIM은 1.74%로 KB국민은행과 동등 수준에 도달했고, 비대면 채널 의존이 강한 MZ세대에서는 주거래은행 비중이 빠르게 인뱅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정부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 중이며, 신규 사업자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 가계금융 부문에서 시중 은행이 받을 압박은 한 단계 더 커집니다. IBK는 가계금융 비중이 낮고 중기 영역에 특화돼 있어 인뱅의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인뱅이 향후 SOHO·소상공인 대출로 영역을 확장할 경우 IBK 소상공인 부문(75조 원 규모)에 일정 수준 침투가 예상됩니다. 2026년 이후 인뱅 사업 모델 변화를 예의 살피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토스뱅크가 2024년 이후 SOHO 대출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IBK의 동(同)고객층과 충돌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인뱅의 모바일 UX와 정책자금 인프라가 결합되는 경우 중소기업 영역의 경쟁 구도가 재편될 여지가 있습니다.

1-4. 가계대출·내부통제 이중 규제와 책무구조도의 본격 작동

스트레스 DSR 3단계가 2025년 7월 1일 시행되어 가산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됐고, 같은 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3.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주의 한도 산정 시 적용되는 명목 부담이 커져 신규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자산성장에 의존한 순익 방어 전략에 제동을 거는 요인입니다. 차주 1억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2025년 7월 1일)도 함께 시행되어 예금자 보호 인프라는 한층 강화했습니다.

내부통제 측면에서 책무구조도는 2025년 1월 2일 은행·금융지주에 본격 적용되었고, 임원별 책무가 문서로 명시화되어 향후 사고 발생 시 임원 개인 제재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시행 1년 평가에서 "대표이사 책임 회피 소지"를 지적하며 보완 TF를 출범시켰고, 2024년 홍콩 H지수 ELS 배상금 1.4조원에 이은 2025년 KB·신한·하나·NH·SC 5개 은행 약 2조원 과징금 통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비용이 손익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IBK는 ELS 판매 규모가 미미해 배상 부담은 제한적이지만, 자체적으로 882억 부당대출 사고로 책무구조도 첫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사례 누적, 금융위 검사 강화, 금감원 종합검사 주기 단축 같은 흐름은 2026년 이후 은행권의 컴플라이언스 인력·시스템 투자를 한층 키우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IBK는 2025년 하반기부터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약 30% 증원하고, 본부 검사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 중소기업·부동산PF 자산건전성의 구조적 악화

은행권 연체율은 2022년 말 0.25%에서 2025년 10월 말 0.58%로 상승하면서 8.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0.9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코로나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잠재 부실이 표면화된 결과이며, 고금리 누적과 내수 부진이 중소기업 현금흐름을 압박한 영향이 큼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부실이 두드러지며,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디스플레이·중소형 건설 업종에서 연체 발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2024년 12월 말 202.3조원에서 2025년 9월 말 177.9조원으로 3개 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PF 부실 정리가 일정 부분 진행됐다는 긍정적 신호이지만, PF 대출 연체율은 4.24%로 2024년 0.37% 대비 12배에 이르는 급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잔존 익스포저의 질적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한시적 규제완화를 2026년 6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2027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 20% 의무화라는 구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 두 정책은 단기 신규 자금 공급을 확보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부실 PF 사업장의 자연스러운 정리를 유도하는 균형 처방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2026년 정책금융 252조원을 공급하고, 5대 중점 분야에 150조원 이상을 집중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거대한 정책자금이 어떤 채널을 통해 집행되는지가 IBK의 향후 5년 위상을 결정짓습니다. 신한·KB·하나·우리 같은 시중은행이 일부 정책자금 공급에 참여하지만, 중기 정책금융의 주력 채널은 IBK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담당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 한도를 결정하고, IBK가 실제 자금을 공급하는 분업 모델은 한국 정책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합니다.

1-6. CBDC·STO·디지털 자산이 만드는 자본시장 지각변동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 파일럿이 2025년 4~6월 10만명 7개 은행 규모로 진행됐으며, 세계 최초 디지털 토큰 결제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2026년 3월에는 2단계가 시작돼 가맹점 결제 범위가 확장되는 한편, 예금 토큰의 기관 간 결제와 도매형 CBDC 연동이 검토 중입니다. 향후 은행권의 결제·송금 인프라가 토큰 기반으로 재편되면, 전통적 결제망 운영 수익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결제·청산 수수료 모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토큰증권 STO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5년 11월 2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장 규모는 2024년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PwC 전망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대 금융지주는 슈퍼앱 통합과 핀테크 제휴를 통한 STO 진입을 핵심 대응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IBK는 IBK투자증권을 그룹 자본시장 게이트웨이로 두고 있으나, 시중 증권사 대비 자본 규모가 작아 STO 시장 점유 경쟁에서는 후순위 위치에 있습니다.

가상자산기본법 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 토큰 결제 인프라 표준화가 2026~2027년에 동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은행권은 디지털 자산 수탁(custody)과 토큰 발행 인프라를 둘러싼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IBK 입장에서는 본업 중기 정책금융의 디지털화, 즉 중기 매출채권의 토큰화·자동 심사·블록체인 기반 보증 인증 같은 영역에서 차별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폴란드·베트남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무역금융을 토큰 기반으로 처리하는 시범 사업이 2026년 하반기 중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디지털 인프라가 결합되는 IBK 고유의 전략적 카드입니다.

이상의 산업 환경은 IBK가 단년도 실적의 표면이 아니라 향후 5년 사업 모델 재편의 본질을 응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상 최대 이익이라는 외형 뒤에서 NIM 압박, 부실 동행, 디지털 침투,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정책금융 252조원의 메인 채널이라는 IBK 고유 위상이 실적의 안정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산업 분석의 결정적 함의입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2-1. 4대 금융지주와의 정량 비교

2025년 4대 금융지주 합산 지배주주 순이익은 18.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KB금융이 5.82조원으로 1위, 신한 5.15조원, 하나 4.08조원, 우리 3.30조원 순서이며, 이 중 KB와 신한은 격차가 6,700억원으로 좁혀지면서 리딩뱅크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은행별도 NIM(2026년 1분기 기준)은 KB국민 1.77%, 신한 1.60%, 하나 1.58%이며, IBK 1.57%(2025년 3분기)는 4대 시중은행 평균 수준입니다. 즉 NIM만으로는 IBK가 시중은행과 동등한 자산 운용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본수익성(ROE)에서는 격차가 큽니다. KB금융 ROE 10.91%, 하나금융 10.91%인 반면 IBK는 약 8%대에 머물러, 같은 자본 1원으로 만들어내는 순익에서 약 25~30% 열위에 있습니다. 자본 적정성을 보여주는 CET1 비율도 KB 13.83%, 하나 13.09% 등 시중은행이 13%대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IBK는 약 11%대로 추정됩니다. 다만 고정이자여신비율은 IBK 1.28%로 시중은행 0.30%대 대비 4배 이상 높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중기여신 집중에 따른 구조적 특성이지 운영 실패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가계 대비 부도 확률이 본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질적으로 높고, IBK의 NPL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의도적으로 위험을 떠안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IBK는 NIM 부문에서 시중은행과 동등한 운용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자본수익성에서는 25~30% 열위, 자본 적정성에서는 약 200bp 열위, 자산건전성 외형에서는 4배 열위라는 입체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 격차의 원인은 사업 모델 차이 자체에 있으며, 시중은행과 같은 잣대로 수익성만 비교하는 것은 IBK의 정책금융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함정입니다. KB·신한·하나·우리는 비은행 자회사를 활용한 그룹 차원의 ROE 부양에 강점을 보이는 반면, IBK는 은행 본체의 자산 규모와 정책금융 채널 지위로 안정적 이익 흐름을 확보하는 모형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2.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대비 IBK의 입체적 차별화

산업은행(KDB)은 자산점유율 8.88%로 2016년 11.68%에서 축소됐으며, 2024년 별도 순익 약 2조원과 정부 배당 7,58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산은은 개인영업이 사실상 부재하고, 산업금융채권(정부 지급보증) 기반의 기업 금융, 구조조정, 정책투자에 특화된 배타적 사업 모델을 운영합니다. 산은의 핵심 자원은 정부 신용을 활용한 저비용 자금조달과 산업·M&A 전문성이며, KDB산업은행법에 의거해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비해 IBK는 약 600개 영업점망과 1,700만 개인고객, 200만 기업고객을 보유한 사실상 종합은행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신용·EDCF·해외투자보험에 특화되며 자산 약 130조원 수준이고, 한국 수출입 거래의 정책금융 채널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 기관 모두 정부 지분 100% 또는 과반 보유라는 점에서 정책금융 카테고리료 묶이지만, 사업 영역과 고객층이 중첩되지 않아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분담 관계에 가깝습니다.

IBK가 산은·수은과 차별되는 핵심 자산은 자금조달 다각화입니다. IBK는 중소기업금융채(중금채, 정부 지급보증)와 예금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산은·수은의 산금채·수은채 일변도 조달 구조보다 안정적인 펀딩 믹스를 확보합니다. 2025년 IBK의 예수금은 약 280조원, 중금채 발행잔액은 약 13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자금조달 회복력을 산은·수은 대비 한 단계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또한 1,700만 개인고객 기반은 단가 낮은 요구불예금·저원가성 예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이는 NIM 방어의 결정적 자원입니다.

또한 IBK는 산은과 달리 일반 중소기업 대상 영업에서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구조에 놓여 있어, 영업력·서비스 품질·디지털 채널 같은 시장 경쟁 요소가 모두 작동합니다. 산은은 정책 의지로 결정되는 의사결정이 많은 반면, IBK는 시장 신호와 정책 방향이 동시에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집니다.

2-3. 비즈니스 모델 비교를 풀어보면

IBK기업은행, 4대 시중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풀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중기여신·예금·중금채를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며 정책금융과 상업은행 사업 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형입니다. KB·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은 가계+기업+자산관리(WM)+IB의 균형 모델을 운영하며 외국인 지분이 약 70%대로 시장 가치 평가에 민감합니다. 산업은행은 정부 100% 지분에 산금채로 자금을 조달하고 구조조정·정책투자에 특화된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정부 100% 지분에 수출입금융채를 활용하며 외환·보증료 비중이 높은 모델을 운영합니다.

정책 역할 비중은 IBK·산은·수은이 매우 큰 반면, 시중은행은 보조적 수준에 머무릅니다. 중소기업 전문성에서는 IBK가 점유율 24.4%로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시중은행은 일반적 수준, 산은은 일부 영역, 수은은 거의 무관한 위치에 있습니다. 개인금융 활동은 시중은행이 가장 강하고 IBK가 그 다음 수준이며, 산은·수은은 사실상 개인영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업을 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시중은행과 IBK가 다수의 해외 점포를 운영하고, 산은·수은 정책 협력 채널 위주로 운영합니다. 디지털 채널 경쟁력은 시중은행과 인뱅이 선두권이며 IBK는 i-ONE Bank 리빌딩으로 추격 중입니다.

이 비교가 시사하는 바는, IBK가 어느 한 카테고리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지 않지만 카테고리 간 결합으로 만들어내는 종합적 위상이 산은·수은 대비 우월하고 시중은행 대비 차별화된다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이 갖지 못한 정책금융 채널, 산은·수은이 갖지 못한 영업점망과 개인고객 베이스를 동시에 보유하는 유일한 한국 은행이라는 점이 IBK의 본질입니다.

2-4. 정부 지분 59.5%가 만드는 양면적 제약

IBK 지분구조는 기획재정부 59.5%, 한국산업은행 7.20%, 국민연금 5.4%, 수출입은행 1.84%, 외국인 약 15%로 정부와 공공이 합산 약 68.5%를 보유합니다. 이 지분구조는 IBK에 두 가지 상반된 함의를 안깁니다.

첫째,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에 따라 중금채가 사실상 국채급 신용도를 가집니다. 이는 자금조달 비용에서 타 은행 대비 절대 우위를 확보해주며, 동일한 대출 자산을 운용해도 펀딩 비용에서 경쟁사 대비 약 10~30bp 우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장 위기 시에는 이 우위가 더 커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IBK는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서도 안정적 채권 발행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S&P·Fitch는 IBK 신용등급을 한국 정부 신용등급과 동등하게 평가하며, 이는 글로벌 자금시장에서 IBK가 누리는 결정적 자산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자율적 보상 정책이 제한됩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 통제로 인해 시중은행처럼 성과에 따라 연봉을 조정하기 어렵고, 우수 인재 유치·유지에서 시중은행 대비 구조적 열위에 놓입니다. 또한 행장 인선이 정부 의지의 영향을 받는 구조여서, 행장 교체기마다 노조의 출근저지와 내부 갈등이 반복되는 패턴이 이어집니다.

2024년 정부 잔여지분이 51.2%로 일부 매각되면서 자본정책 자율성이 미세하게 확장됐고, 추가 매각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분기배당이 2024년 정관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5년부터 본격화됐고, CET1 비율 연계 단계적 배당성향(30%, 35%, 40%) 상향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이는 IBK가 정부 지분 보유라는 제약 안에서도 시장 친화적 자본정책을 강화하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2-5. 최근 6개월 핵심 이슈 시간순 분석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1월 공시된 239억 배임이 882억 부당대출로 확대되며 검찰의 본점 압수수색과 9명 기소가 이어져 김성태 행장 연임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년도 손익 차원이 아니라 IBK의 내부통제 신뢰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당대출의 핵심은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임직원이 가족·친인척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책무구조도 시행 직후 발생한 첫 대형 사고라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10월에는 3분기 누적 연결순이익 2.26조원(전년 대비 +2.8%)을 발표했고, 12월 'i-ONE 가드 AI 피싱문자 진단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디지털 안전 부문에서 선제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장민영 신임 행장이 임명됐는데, 1989년 입행 후 IBK자산운용 대표와 리스크관리그룹장을 역임한 인물로 자본시장과 리스크 양 부문에서 경험을 쌓은 내부 출신입니다. 2월 5일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 2조 7,189억원 사상 최대 실적이 공개됐고,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노조의 출근저지가 22일간 이어진 끝에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노조 쟁점은 시간외수당의 총액인건비제 한계와 임금 가이드라인 완화 요구였습니다.

2026년 4월 22일 베트남 100% 외국자본 은행 영업허가를 취득하면서, 9년 만의 외국계 신규 인가이자 한국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계 4번째 사례라는 의미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IBK의 동남아 동반진출 전략이 결실을 맺은 사례이며, 베트남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채널이 본격 확장되는 계기입니다. 4월 14일에는 '디지털뱅크 리빌딩 1단계'에 착수했는데, 이는 i-ONE Bank의 인프라를 유닉스에서 리눅스+컨테이너+GPU 환경으로 전환하고 AI 에이전트 기반의 차세대 채널을 구축하는 약 1년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상의 6개월간 흐름은 IBK가 사고 수습, 신임 행장 체제 출범, 글로벌 확장, 디지털 인프라 재구축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동시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변수가 다른 변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여서, 어느 한 영역의 부진이 그룹 전체의 신뢰와 위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3-1. 사업 구조와 자회사 의존도 심화 현상

2025년 IBK 연결 당기순이익은 2조 7,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별도 당기순이익은 2조 3,8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이 격차는 자회사 실적이 본체 부진을 보전하는 구조가 정착됐음을 보여줍니다. 본체 손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자이익은 7조 2,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비이자이익은 7,2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6% 폭증했습니다. 비이자이익 급증은 환율 안정 국면의 외환 트레이딩 수익과 유가증권 평가이익이 견인했으며, 이는 1장에서 분석한 은행권 전체의 외환·파생 수익 폭증 흐름과 일치합니다.

자회사별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IBK캐피탈은 2024년 사상 최대 2,142억원에 이어 2025년 2,456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그룹 비은행 1위 기여를 이어갔습니다. IBK캐피탈은 자동차금융·기업금융·부동산금융을 균형 있게 운영하면서, 시중 캐피탈사 대비 정부 지원 정책금융 채널 활용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IBK투자증권은 2025년 575억원(상반기 -14.4%)으로 시장 변동성과 IB 부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IBK연금보험은 IFRS17 도입 이후 2년 연속 적자(2023년 -771억원, 2024년 -259억원)를 기록하면서 그룹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IBK저축은행과 IBK자산운용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안정적 흑자 기초를 유지하며, IBK시스템은 그룹 IT 인프라 핵심 자회사로 디지털뱅크 리빌딩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기업금융이 총대출의 약 83%를 차지하며,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024년 247.2조원에서 2025년 261.9조원으로 14.7조원(+5.9%) 성장했습니다. 시장점유율은 23.65%에서 24.4%로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시중은행 4사가 합산해도 IBK 한 곳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적 격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IBK가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중기 정책금융 채널을 강화한 결과이며,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중심 사업으로 이동하는 동안 비어가는 중기 영역을 IBK가 빠르게 흡수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3-2. 김성태에서 장민영으로 이어지는 전략 메시지의 연속과 단절

김성태 행장(2023년 1월~2026년 1월)은 "가치금융(Value Finance)", "동반자 금융", "Growing Together, Finance for All"이라는 슬로건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2025년 신년사에서는 5대 과제로 ① 중소기업금융 강화, ② 미래가치 제고, ③ 균형성장, ④ 건전성·수익성, ⑤ 반듯한 금융(금융사고 제로화)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882억 부당대출 사고로 "금융사고 제로화" 슬로건이 무색해졌고, 결과적으로 연임이 무산됐습니다. 김성태 체제의 성과로는 자산 500조 돌파, 연 순익 2조원대 안착, 폴란드 법인 인가, 분기배당 도입 등이 있으나, 사고로 인한 신뢰 훼손이 이를 가렸습니다.

장민영 행장(2026년 2월 20일 취임, 제28대)은 취임사에서 "IBK가 자금 공급자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체질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개선을 선도하는 금융 파트너로 도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천명했습니다. 3대 전략은 ① 생산적 금융, ② 포용적 금융, ③ AI 기반 금융기업 전환입니다. 이전 김성태 체제와 비교하면, "동반자 금융"이라는 정서적 키워드 대신 "생산적 금융"이라는 자본배분 효율성 키워드가 전면에 나섰고, "AI 기반"이라는 디지털 전환 의지가 본격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장민영 행장의 자산운용·리스크관리 백그라운드와 부합하며, 향후 IBK의 의사결정에서 정량 분석과 자본 효율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행장 교체에 따라 임원 진용도 일부 재편됐으며, 본부 부서 중 자산운용·리스크관리·디지털 부문에 새로운 인력이 배치되는 조직 개편이 2026년 1분기 중 이뤄졌습니다. 영업점장 인사도 2026년 6월 정기 인사에서 큰 폭 변동이 예상되며, 882억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새로운 평가 기준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3-3. 'IBK형 생산적 금융 30-300 프로젝트'의 전략적 함의

장민영 체제의 시그니처 정책은 "2030년까지 총 300조원을 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과 혁신기업·창업·벤처·지방 중소기업에 투입"하는 30-300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IBK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이 출범했고, 은행+증권+자산운용+벤처투자 6개 계열사가 공동 참여하는 그룹 통합 거버넌스가 구축됐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펀드, 전남 BESS, 부산 데이터센터, 신재생 PF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3년간 메자닌펀드 5,000억 원을 조성하고 IBK투자증권 코스닥 리서치센터를 신설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가 함께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략적 함의는 IBK가 "대출은행"에서 "산업 파트너 + 자본시장 플레이어"로 재포지셔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시설자금 대출을 공급하는 역할이 IBK 사업의 본류였다면, 이제 메자닌·에쿼티·CB·BW·펀드 출자 형태의 자본 공급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됩니다. 이는 미국 SVB(Silicon Valley Bank)나 영국 영국비즈니스은행(British Business Bank)이 운영해온 모델과 유사하며,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본 수요에 맞춰 채권·자본·자문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 금융 파트너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만 30-300 프로젝트는 두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신산업 투자의 본질적 위험입니다. AI·반도체·에너지 같은 영역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사업화 실패율이 높아, 정통 여신 심사 모델로는 평가가 어렵습니다. 둘째,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유지입니다. 중기부·산업부·기재부의 산업정책이 정권 교체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경우, IBK가 한 방향에 집중 투입한 자본의 회수 경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IBK는 그룹 통합 리스크관리 체계와 ESG·기술실사 인력을 본격 확충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75조원 지원과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 금융이 강화됩니다. 창업 단계 기업에는 기술보증·신용보증과 결합한 저금리 대출, 성장 단계에는 벤처투자·메자닌, 안정·재도약 단계에는 정책자금 차환·구조조정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이로써 IBK는 한 기업과 5년, 10년, 20년에 걸친 평생 동반 관계를 구축할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단년도 한도 발급이 아니라 평생 동반 모델이라는 점이 시중은행과 가장 명확한 차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3-4. 디지털·글로벌·ESG 차별화 자산 분석

i-ONE Bank Global의 외국인 15개 언어 재구조를 포함한 '디지털뱅킹 리빌딩 1단계'(2026년, 약 1년)가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닉스 환경을 리눅스+컨테이너+GPU 환경으로 전환하고, AI 에이전트 기반의 채널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IBK 자체 'IBK GPT'를 개발하는 광범위한 작업을 포함합니다. 시중은행이 이미 2~3년 전부터 진행해온 차세대 시스템 전환에 비해 시점은 다소 늦지만, 후발주자 이점을 활용해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와 생성형 AI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7~2028년 2단계가 진행될 경우 본부 업무 자동화·RM 디지털 워크스페이스·중소기업 대상 AI 어드바이저 같은 영역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글로벌 사업은 법인 3개(중국·인도네시아·미얀마)와 지점 9개(뉴욕·도쿄·홍콩·런던·호치민·하노이·뉴델리·마닐라·프놈펜)로 구성되며, 2024년 11월 폴란드 법인 KNF 인가(국내은행 최초 동유럽 진출)와 2026년 4월 베트남 100% 외국법인 인가가 핵심 자산입니다. 폴란드 법인은 K-방산·이차전자·전기차 동반진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화·LG에너지솔루션·삼성SDI·현대모비스 등 폴란드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 자금 수요에 대응합니다. 동남아 네트워크는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캄보디아·필리핀에 걸쳐 한국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채널 역할을 수행합니다.

ESG 측면에서는 2040년 자체 탄소중립, 2050년 금융자산 탄소중립을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선언했고, SBTi 인증, CDP Korea Leadership A 등급(3년 연속), 글로벌파이낸스 '지속가능금융 한국 최우수 은행'(2024~2026 3년 연속) 등의 외부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EU CBAM·CSRD 같은 글로벌 ESG 규제 강화 흐름에 대비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지원에서 IBK가 핵심 채널로 기능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중소기업 ESG 진단·녹색금융 대출·탄소배출권 거래 같은 새로운 수익 영역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5. 4대 리스크의 균형 진단

IBK의 핵심 리스크를 균형 있게 진단하면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산건전성 리스크입니다. 연체율이 0.69%(2023년)에서 0.89%(2025년)로 상승했고, 3분기 한때 1.00%에 도달했습니다. 회생기업 부실여신은 1,500억원 급증세를 보이며, 코로나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의 정상화 과정에서 잠재 부실의 추가 표면화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다만 IBK는 NPL 매각·정리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2025년에만 약 8,000억원 규모의 NPL 매각이 진행됐습니다.

둘째, NIM 압박 리스크입니다. NIM은 1.67%(2024년 3분기)에서 1.55%(2025년 2분기)로 12bp 축소됐고, 별도순이익 -1.7%로 본체 수익이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추가 진행될 경우 NIM 추가 압박이 불가피하며, 이를 자산 성장과 비이자이익 다각화로 보전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셋째, 내부통제 리스크입니다. 882억 부당대출 사고는 2014년 모뉴엘 사기대출(1,508억원) 이후 IBK 최대 규모 사고이며, 책무구조도 첫 적용 사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임원 항응 의혹·검찰 압수수색·9명 기소까지 진행되면서 회사의 내부통제 신뢰도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향후 임원 개인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경영진 인선 자체가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큼니다.

넷째, 자회사·해외 리스크입니다. 연금보험의 8% 보증 변액연금 출시는 부채 부담을 키울 우려를 안고 있으며,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1,000억원 사고와 같은 해외법인 운영 리스크가 IBK 동남아 네트워크에서도 잠재합니다. 또한 MG손해보험 인수 무산(2024년)에 이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인수 추진(2025년)도 그룹 비은행 포트폴리오 변동성 요인입니다.

3-6. 자본정책과 주주환원 정책의 새로운 국면

분기배당이 2024년 정관 개정으로 도입돼 2025년부터 본격화됐고, CET1 연계 단계적 배당성향(30%, 35%, 40%) 상향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정부 지분 51.2% 보유 구조 안에서 정부는 IBK의 배당을 통해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므로, 배당정책 강화는 정부 재정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한 흐름입니다.

다만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 CET1 11%대는 시중은행 13%대 대비 200bp 열위이므로, 배당성향을 무리하게 끌어올릴 경우 자본 축적 속도가 느려져 자산 성장 여력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BK는 배당과 자본 축적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보수적 자본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300 프로젝트의 300조원 자본 공급을 감당하려면 향후 5년간 자본 확충이 본격 진행돼야 하며, 이는 신증자본증권 발행·후순위채 발행·일부 자회사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IPO 등의 옵션이 고려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부의 IBK 지분 일부 추가 매각도 자본정책 자율성 확장 차원에서 거론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향후 3~5년 IBK 자본구조의 핵심 변수입니다.

이상에서 본 IBK의 사업 구조와 전략은 정책금융 본업의 강화, 자회사 다각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확장, 자본 정책 정교화라는 다섯 가지 흐름이 동시 진행되는 종합적 변혁 국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

4-1. 공식 인재상의 다층 구조 해부

IBK의 인재상은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되지 않고, 여러 가지 용어가 동시에 작동하는 다층적 구조를 가집니다. 가장 상위에는 목표가치 "고객의 행복"이 있고, 그 아래에 생활가치 3종(신뢰와 책임 / 창조적 열정 / 최고의 팀워크)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사 측면에서는 5인재상(전문인·세계인·책임인·창조인·도전인)을 따로 운영하고, 인사 슬로건으로 "최고의 인재(Best Human power), 최고의 직장(Best Workplace), 최고의 시스템(Best System)"이라는 3B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2022년 새 브랜드 비전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 발표되면서 4대 핵심가치(신뢰·공감·실력·혁신)가 추가되어, 직원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가치 키워드가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NCS 직무기술서에는 4대 핵심가치(고객과 함께 / 신뢰와 책임 / 열정과 혁신 / 소통과 팀워크)가 직무수행태도로 명시돼 있어 채용에서 그대로 평가지표로 작동합니다. 이 같은 다층 구조는 한편으로는 IBK가 지향하는 가치의 폭이 넓다는 의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 위계가 모호해 현장에서의 우선순위 판단이 행원 개인의 해석에 맡겨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882억 부당대출 사고 이후 "신뢰와 책임"이 다른 가치들 위에 명확히 자리잡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KPI 정성평가에서 윤리·컴플라이언스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와도 부합합니다.

4-2. CEO 주도 소통 문화와 882억 사고 이후의 쇠신 흐름

김성태 행장 재임기에는 비공식 소통 채널이 활발히 운영되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은 직원이 신청하면 행장이 영업점이나 본부 부서를 찾아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고, "공감IBK 토크콘서트", "소통포차" 같은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김 행장은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존중"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으며, 사내 문화 평가에서 행장 친화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882억원 부당대출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한부작신(換腐作新,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것을 만든다)" 선언과 함께 IBK쇄신위원회가 출범했고,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 구축, 모든 대출 건의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 의무화, 승인여신 점검 조직 신설, 외부 독립 내부고발 채널 구축이 단행되었습니다. 무관용 엄벌주의와 온정주의 일소가 표방되면서, 신뢰와 책임, 윤리의식의 평가 비중이 채용·승진에서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사내에서는 "이전에는 영업 실적이 1순위였다면, 이제는 내부통제와 영업 실적이 동등 비중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민영 행장은 취임사에서 윤리·책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AI 기반 사전 적발 시스템 도입과 임직원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882억 사고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년도 캠페인이 아니라 향후 5년 인사·평가·보상 체계의 근본 재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니다. 사내 윤리교육 시간이 연간 16시간에서 32시간 수준으로 늘어나고, 모든 임직원이 분기별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의무 응시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4-3. 보상·근무 환경의 이중 비대칭 분석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IBK와 4대 시중은행의 보상 비교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1인 평균연봉은 IBK 약 8,500만원, 시중은행 약 1억 1,600만원으로 -3,100만원, -36% 격차입니다. 미등기임원 평균연봉은 IBK 2.74억원, 시중은행 4.33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의 격차를 보입니다. IBK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자율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제약입니다. 매년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2024년 2.5%, 2025년 약 2~3% 수준)이 적용되며, 시중은행이 성과에 따라 5~10%대 인상을 단행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공채 경쟁률은 2019년 93:1에서 2023년 약 46:1로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은 두 가지 흐름의 결합으로 해석됩니다. 첫째, 청년 인구 감소와 IT·플랫폼 기업 선호 증가로 전반적 금융권 인기가 줄었습니다. 둘째, IBK 연봉 격차에 대한 정보가 SNS·취업 커뮤니티에서 널리 공유되면서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은 시중은행으로 우수 인재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46:1이라는 경쟁률 자체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지원자에게 IBK는 여전히 매력도가 높은 직장입니다.

직원 후기(잡플래닛 1,535건 평점 3.8점, 블라인드 등)에서 반복되는 키워드를 정리하면 장점으로 "정년 보장, 고용 안정, 정책금융 사명감, 복리후생, 시중은행 대비 적은 야근(점포에 따라 차이)"이 꼽히고, 단점으로는 "낮은 연봉, KPI 압박과 교차판매, 잦은 점포 순환, 보수적 위계 잔존, 일부 영업점 야근, 민원 강도"가 꼽힙니다. 결국 "공기업 임금 + 시중은행 영업 강도"라는 이중 비대칭이 직원들의 핵심 불만으로 작용하며, 회사 측은 이를 복지·교육·승진 기회 확대로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측면에서 IBK는 자녀 학자금, 사내 어린이집, 의료비 지원, 본인·배우자 생일·결혼 기념일 보너스, 사내 동아리 지원 등 광범위한 복지를 제공하며, 워라벨 측면에서는 점포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본부 부서나 전산·후선 부서는 시중은행 대비 양호한 평가를 받습니다. 임원으로 승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자주 언급되지만, 부지점장·지점장 같은 중간 관리자 직급까지의 승진 경로는 시중은행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도 동시에 나옵니다.

4-4. 노조 변수와 권력 구조의 작동 방식

IBK 노조는 역대 행장 출근저지로 잘 알려진 강성 노조입니다. 낙하산 인사 반대, 복지 협상 카드, 임금 인상 요구 등을 출근저지 형태로 전개해온 역사가 있으며, 2026년 2월 장민영 신임 행장도 19~22일간 출근저지를 거친 후 노사 합의가 이뤄진 다음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 쟁점은 시간외수당의 총액인건비제한계와 복지 격차 해소, 그리고 882억 사고 이후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의 합리적 적용 범위였습니다.

평가 측면에서 IBK는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022·2023년 A등급을 획득해 임직원 성과급 산정에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24년 평가는 882억 사고의 영향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다소 보수적 결과가 예상됩니다. 인사 운영에서는 채용 분야 구분(서울·수도권, 지역인재 등)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 사유로 본부와 전국 영업점 배치가 가능하며, 지역인재는 5년 이상 의무 근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행 2년 이후 국외지점 OJT(약 6개월) 선발 기회가 열리며, 글로벌 인재 양성 트랙으로 활용됩니다.

권력 구조의 작동 방식을 보면, 행장은 정부 지분 51.2%의 영향 아래에서 임명되지만 임기 중에는 노조와의 합의·금융위 감독·이사회 견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본부 임원은 행장 인선과 함께 교체되는 경우가 많고, 영업점장 인사는 매년 6월·12월 정기 인사에서 결정됩니다. 이 같은 다중 견제 구조는 의사결정 속도를 다소 늦추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독단적 판단으로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사태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882억 사고는 이 다중 견제 구조 안에서도 임직원 일부의 일탈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향후 견제 시스템의 정교화가 핵심 과제로 자리잡았습니다.

4-5.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다섯 가지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IBK 금융일반 직무가 선호하는 인재 특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동반자"라는 사명감입니다. IBK는 영리법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따라서 "왜 시중은행이 아니라 IBK인가"에 대한 가치관 적합성이 결정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마인드가 사업 모델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리 동기만 강한 인재는 일정 시점 이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재무제표를 산업·기술 맥락에서 읽는 능력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재무 안정성 외에도 산업위험·경영위험·기술력·시장지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단년도 매출액·영업이익만으로는 신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분석에 산업 트렌드 이해, 경쟁사 비교, 기술력 평가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기 신뢰관계 구축 능력입니다. 중기 RM은 한 기업과 5년에서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거래 관계를 이어가며 추가 자금수요·외환·퇴직연금·승계금융까지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의 거래로 끝나는 기업금융과 달리, 평생 동반자 관점의 관계 운영이 요구됩니다. 이런 관계는 한 사람의 영업력만이 아니라 후임 RM에게 인계할 때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조직 차원의 역량으로 만들어집니다.

넷째, 다부서 협업 역량입니다. 영업점 RM은 본부 심사부·여신감리·컴플라이언스·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동시에 일해야 하며, 외환·퇴직연금·자산관리 같은 부속 영역에서는 본부 전문 부서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영업점 안에서만 일하는 인재가 아니라, 본부와 외부 기관을 아우르며 의사소통과 협상을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인재가 우대됩니다.

다섯째, 882억 사고 이후 강화된 윤리·책임의식입니다.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친인척 DB·승인여신 점검 같은 절차적 통제가 강화된 환경에서, 단년도 실적 압박을 윤리 기준으로 거절할 수 있는 강단이 핵심 인재 요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업 실적과 윤리 기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향후 승진·발탁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는 KPI 1,000점 체계 안의 정성평가(윤리·협업·고객만족도·컴플라이언스 사고 0건 유지)가 한층 무게를 갖는 흐름과 연결됩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특성은 도메인 자체의 본질에서 도출되는 자연스러운 요건이며, 한국 중소기업 금융 현장에서 30년, 40년 일해온 베테랑 행원·임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자질입니다.

5장: 직무 분석

5-1. 직무 분류와 1년차 영업점 동선

IBK 채용공고 '금융일반'은 NCS상 금융영업 부문 안의 창구사무·기업영업·PB영업 3개 세분류를 통합한 직군입니다. 핵심책무는 6대로 정리되며, 고객대출·고객관리·고객상담·거래약정 및 심사·고객 제안 및 협상·금융소비자 보호가 그 내용입니다. 입행 초임호봉은 5급 11호이며, 고졸인재는 5급 6호로 입행합니다.

1년차 신입은 영업점에 배치되어 8시 30분에서 9시 사이 출근해 환경 정리, 시재 준비, 전산 점검을 하고, 9시 셔터 OPEN 이후 16시까지 입출금·환전·송금·예적금·신용대출·담보대출 상담 보조를 수행합니다. 16시 이후에는 시재마감, 전표 정리, 익일 준비를 하며 하루 사이클을 마무리합니다. 통상 창구(텔러)에서 시작해 후선업무(어음·자동이체·전산처리), 여신 보조(자료수집·약정서류·사후관리 보조), CS·세일즈(카드·방카·펀드 교차판매)를 순차적으로 경험한 후, 1~2년 차에 PB·기업금융(RM)·외환 같은 전문 영역으로 분기됩니다.

이 1년차 동선은 시중은행과 본질적으로 비슷하지만, IBK 특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영업점에 중기 거래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기업 비중이 높아 창구 업무 중에도 기업 외환·법인 입출금·세금 납부 처리 같은 기업금융 기초 업무를 일찍 접하게 됩니다. 둘째, 정책자금 신청·신보/기보 보증서 처리 업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해, 정책금융 행정 흐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셋째, 점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계 PB 비중이 시중은행보다 낮고 중기 RM 비중이 높아, 신입의 향후 커리어 경로가 RM 트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RM의 한 달·한 해 사이클

기업금융 RM의 업무는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로 사이클이 뚜렷합니다. 월 단위로는 월초 KPI 진척도 확인, 중순 신규고객 콜과 상담 캠페인, 월말 마감(수신·여신 잔고 평균잔액 관리)과 월간 회의가 반복됩니다. 분기 단위로는 본부 KPI 평가, 중기 거래기업 결산자료 수령과 재심사, 보증서 갱신이 핵심 이벤트입니다. 연 단위로는 상·하반기 정기 인사, 연간 KPI·보너스 확정, 12월 연말정산과 법인 결산 지원, 신년 영업계획 수립이 진행됩니다.

RM의 일상 업무를 자세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거래기업 발굴은 시군구 산업단지 방문, 업종별 협회 네트워크, 기존 고객 추천, 본부 정책상품 캠페인 등 여러 경로로 이뤄집니다. 발굴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산업·기술력 평가를 진행하고, 여신 신청 자료를 작성해 본부 심사부와 협의합니다. 약정 체결 시에는 담보·보증 설정과 약정조건 협상이 진행되며, 외환·무역금융(L/C, 수출입 채권)과 파생상품 헤지 안내도 이뤄집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잔액·연체율 모니터링, 추가 자금수요 발굴, 결산자료 분석, 부실 징후 시 본부 여신감리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교차판매로는 외환·퇴직연금·임원 PB·법인카드·방카가 일상적으로 진행됩니다.

RM 직무의 본질은 거래기업과의 평생 동반 관계 운영입니다. 한 기업의 창업기·성장기·성숙기·재도약기를 함께 하면서, 운전자금에서 시설자금, 외환·퇴직연금, 승계금융, 구조조정에 이르는 전 단계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영업력만이 아니라 산업 이해, 신용 판단, 윤리적 판단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한 RM이 통상 30~50개 거래기업을 동시 관리하므로, 효율적 시간 배분과 거래처 우선순위 판단이 매일의 업무 품질을 좌우합니다.

5-3. 본부 부서의 직무군 11종 구성

IBK 본부 직무군은 11종으로 구성됩니다. 기업금융, 개인금융, 카드사업, 자산운용 및 자금, 여신지원(심사), 리스크관리, 여신감리, IT, 경영기획, 경영지원, 검사부가 그것입니다. 경영기획에는 경영전략, 예산, 이사회 운영, IR(투자자관계), 중소기업관계, 점포전략, 홍보가 포함되고, 자산운용/자금에는 자금조달, 외화·원화 운용, 외환, 파생, 주식·채권 운용, 신탁, 국제투융자가 들어갑니다.

신입은 일반적으로 영업점에서 1~3년 근무한 후 본부 직무로 이동하는 순환 구조이며, 본부 발령은 KPI·평판·전문자격증·어학을 종합 평가합니다. 본부 부서는 영업점에 비해 야근 빈도가 낮고 전문성 축적이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 영업 현장 감각이 떨어지면 다시 영업점으로 복귀했을 때 적응 부담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와 영업점을 번갈아 경험하는 회전형 커리어가 IBK 행원들이 선호하는 표준 경로입니다.

본부 부서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은 경영기획·자산운용·IT 그룹이며, 가장 도전적이라 평가받는 부서는 검사부와 여신감리부입니다. 검사부는 사내 감사 기능을 수행하며, 882억 사고 이후 인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향후 IBK 내부 권력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니다. 여신감리부는 부실 채권 관리·회수 업무를 담당하며, 중기 도메인 전문성이 가장 높게 평가받는 부서입니다. 30-300 프로젝트 추진단의 신설로 자산운용그룹과 IB 부문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으며, 이는 본부 직무군 안에서의 인력 배치 우선순위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4. 이해관계자 맵의 3중 구조

IBK 금융일반 직무가 다루는 이해관계자는 내부, 외부, 정책·감독기관의 3중 구조로 구성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내부 이해관계자에는 영업점 라인(지점장·부지점장·팀장·책임자·행원)과 본부 부서(심사부·여신감리·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디지털그룹·각 사업그룹·HR·검사부), 자회사(IBK캐피탈·IBK투자증권·IBK연금보험·IBK저축은행·IBK시스템·IBK자산운용)가 포함됩니다. 영업점 안에서는 지점장이 KPI 책임자이고, 부지점장과 팀장이 실질 영업을 견인하며, 책임자와 행원이 실무를 담당하는 위계가 명확합니다. 자회사와의 협업은 그룹 시너지의 핵심으로, 거래 기업이 IBK 은행에서 시작해 IBK캐피탈의 리스금융, IBK투자증권의 IB 자문, IBK연금보험의 퇴직연금까지 통합 이용하는 경우가 IBK 영업 모델의 표준 사례입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에는 중소기업 대표·CFO·재무·세무 담당자, 개인고객, 회계법인·세무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HF(주택금융공사)·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포함됩니다. 정책금융 거래에서 신보·기보의 보증 한도 조회, 만기 갱신, 부실 발생 시 대위변제 청구 같은 작업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며, 이들 기관과의 관계 관리가 RM 업무 효율성을 좌우합니다. 세무사·회계사 네트워크는 신규 거래기업 발굴과 결산자료 검증의 핵심 채널로 기능합니다.

정책·감독기관에는 금융위(최대주주이자 감독기관), 금감원(검사·제재), 기획재정부(임금·배당·최대주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 정책 협의), 한국은행(통화정책·결제시스템), 국회 정무위원회(국정감사)가 포함됩니다. IBK 행원이 이들 기관과 일상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지만, 본부 경영기획·IR·중소기업관계 부서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의가 빈번합니다.

이 3중 구조의 동시 관리가 IBK 직무의 본질적 복잡성이며, 한 가지 영역만 잘해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직무 특성으로 이어집니다. 가령 거래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빠질 때 RM은 영업점장(내부), 본부 여신감리부(내부), 신보·기보(외부), 회계사(외부)를 동시 조율해 회수 또는 회생 패키지를 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내부)와 금감원 검사 가능성(감독기관)까지 의식해야 합니다.

5-5. 필요 역량과 자격증 매핑

지식·기술 측면에서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중소기업 재무 해석과 추정), 여신심사와 신용평가모델(IBK Auto-Evaluation 같은 자동심사 도구 활용), 외환·무역금융(L/C, 수출입 채권), 세무 기초(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산업과 기술력 평가, 컴플라이언스(개인정보·금융실명·금융소비자보호법), 데이터·CRM 활용입니다. 이 가운데 재무제표 분석과 여신심사는 신입 단계에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이 요구되며, 외환·세무·산업 평가는 연차가 쌓이면서 익혀가는 영역입니다.

소프트스킬 측면에서는 영업력(고객 발굴·제안·협상), 커뮤니케이션(내부 부서·외부 기관 협업), 윤리적 판단(영업 압박과 컴플라이언스 충돌 시 의사결정), 시간 관리와 멀티태스킹(여러 거래처를 동시에 관리), 정서적 회복력(민원·실적 압박에 대한 내성)이 핵심입니다. 영업점 행원은 하루 평균 30~80건의 고객 응대와 5~10건의 여신·외환 처리, 2~3건의 본부 부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멀티태스킹과 우선순위 판단이 일상 성과의 본질적 차이를 만듭니다.

자격증은 영역별로 매핑이 가능합니다. 개인·PB 영역에는 AFPK(한국재무설계사)와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산관리·WM 영역에는 투자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분석사, 기업·심사 영역에는 신용분석사와 여신심사역, 외환·무역 영역에는 외환전문역 1·2종과 CDCS(국제상업회의소 인증 신용장 전문가), IB·리스크 영역에는 CFA(공인재무분석사)와 FRM(국제공인재무위험관리사), 회계 영역에는 KICPA(한국 공인회계사)와 AICPA(미국 공인회계사)가 우대됩니다. 채용 시 가점은 가장 높은 1개만 적용되며, 자격증 보유 자체보다 직무와의 적합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어학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표면적 자격요건은 아니지만, 글로벌·외환·국외지점 OJT를 지향하는 행원이라면 영어,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가 가산 요인입니다. 자소설닷컴 통계에서 IBK 합격자 평균 토익은 849.9점 수준으로 나타나, 시중은행과 비슷한 어학 수준이 요구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법인 본격 가동과 베트남 100% 외국법인 출범이 진행 중인 만큼, 폴란드어-베트남어 같은 비주류 언어 능력이 향후 글로벌 트랙 인재 평가에서 가산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니다.

5-6. KPI 1,000점 체계와 디지털 KPI의 공존

IBK 영업점 행원의 KPI는 총점 1,000점 체계의 4대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수익성·건전성, 성장성, 고객관리, 직원·내부통제가 그것입니다. 2018~2020년 사이 교차판매 배점이 30점에서 55점으로 늘어나면서 '꺾기'(예금·대출 끼워팔기) 의혹의 빌미가 됐고, 2021년 이후 '고객기반성장'으로 통합되었지만 실질 비중은 150점에서 210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IBK가 단년도 실적 인센티브 구조에서 장기 고객관계 관리 구조로 KPI를 재편했음을 의미합니다.

2022년 IBK는 국내 최초로 본부 전 직원 디지털 KPI를 도입했고, 디지털 고객, 업무 자동화, 디지털 이익, 디지털 기반 4개 카테고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KPI는 기존 영업 KPI와 병렬로 작동하며, 디지털 전환 의지가 임직원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영업점 단위에서도 i-ONE Bank 모바일 가입 고객 수, 비대면 채널 거래 비중, 자동심사 활용도 같은 지표가 KPI에 포함되면서, 행원의 일상 업무가 대면 응대와 디지털 안내를 균형 있게 수행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윤리(부당지시 거부 포함), 협업, 고객만족도, 컴플라이언스 사고 0건 유지가 핵심입니다. 882억 사고 이후 무관용 엄벌주의가 강조되면서 컴플라이언스 사고 발생 시 KPI 점수와 관계없이 승진·평가에서 결정적 불이익이 가해지는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KPI 점수만 높다고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우며, 영업과 컴플라이언스가 동등한 비중으로 평가되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KPI 결과는 6월과 12월 정기 인사, 보너스 산정, 본부 발령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업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KPI 우수 달성과 무사고 기록이 동시에 요구되며, 본부 핵심 부서로 이동하려면 KPI 성과 외에도 어학·자격증·인적 평판이 종합 평가됩니다. 행장 교체기에는 KPI 가중치가 일부 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장민영 행장 체제 출범 후 디지털 KPI와 컴플라이언스 정성평가의 비중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5-7. 표준 업무 시나리오: 신규 여신부터 사후관리까지

중소기업 신규 여신 의뢰부터 사후관리까지의 표준 8단계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객 의뢰와 접촉입니다. 거래 기업 대표나 CFO가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자금 수요를 알려오면 RM이 1차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금 용도(운전자금, 시설자금, 차환), 희망 한도, 희망 만기, 담보 가능 자산이 1차 청취 항목입니다. 이 단계에서 RM은 거래기업의 산업·매출 추이·CEO 경력·주거래은행 정보를 사전 조회해 면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둘째, 자료 수집입니다. 재무제표 3개년, 부가세 신고서, 매출처 원장,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신보·기보 한도 사전 조회 결과 같은 자료를 받습니다. IBK는 정책금융 채널이므로 신보·기보 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가 여신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회계사·세무사 의견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셋째, 재무·산업 분석입니다. NICE·한국기업데이터 같은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산업위험·경영위험·영업위험·채무위험 4가지 요인을 평가합니다. IBK Auto-Evaluation 같은 자동심사 시스템이 1차 신용도 평가를 제공하며, RM은 이를 정성 정보(현장 방문, 경영자 면담)와 결합해 종합 판단합니다. 현장 방문 시에는 공장 가동률, 재고 상태, 거래처 다변화 정도, 경영자의 사업 비전이 핵심 점검 항목입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넷째, 여신품의서 작성입니다. 한도, 금리, 기간, 담보, 약정조건을 정리해 본부에 송부할 품의서를 작성합니다. 한도가 영업점 권한 이내라면 영업점장 결재로 승인되고, 권한 초과 시에는 본부 심사부로 이관됩니다. 영업점 권한은 거래기업 신용등급과 한도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BBB 이상 등급의 10억원 미만 한도가 영업점 자율 결재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섯째, 본부 심사부 송부와 협의입니다. 본부 심사역과 RM이 협의하면서 한도·조건이 조정되고, 일부 사례에서는 추가 자료 요청이 이뤄집니다. 이 단계에서 RM의 사전 분석 품질이 심사 속도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심사부와 RM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클 경우 영업점장이 중재하거나, 더 큰 사례에서는 본부 여신위원회 심의로 올라갑니다.

여섯째, 약정 체결입니다. 여신약정서, 근저당설정 계약서, 보증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고 고객의 인감을 받습니다. 등기소 방문, 신보·기보 보증 발급, 부동산 감정평가 같은 부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외환 거래가 포함된 경우 별도의 외환약정서와 한도 설정이 추가됩니다.

일곱째, 사후관리입니다. 분기별 결산자료를 받아 재무비율을 모니터링하고, 외환·매출 추이를 점검합니다. 부실 징후(매출 급락, 재고 누적, 거래처 부실, 대표 신용도 하락 등)가 발견되면 여신감리부로 이관해 추가 보증·담보 확보, 한도 축소, 회수 절차로 이어집니다. 사후관리는 신규 거래 발굴 못지않게 중요한 RM 업무이며, 한 거래 기업이 부실로 가는 시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므로 조기 징후 포착이 손실 최소화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여덟째, 갱신·연장입니다. 여신 만기 시점에 재심사를 거쳐 한도와 조건을 조정합니다. 거래 기업의 성과가 양호하면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우대 조건을 적용하며, 성과가 부진하면 한도 축소와 추가 담보 요구가 진행됩니다. 갱신은 거래 관계의 지속과 단절이 결정되는 분기점이므로, RM은 갱신 1~2개월 전부터 거래기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본부와 사전 협의를 시작합니다.

2025년 882억 사고 이후 추가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대출 건에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담당직원과 심사역이 서명해야 하고,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 사전 조회가 의무화됐습니다. 또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이 표본 점검을 정기 진행해, 비정상 거래 여부를 사후 검증합니다. 이 절차들은 행원의 일상 업무 부담을 일정 수준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IBK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본부 감사부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영업점 단위 정기 점검 빈도도 늘어났고, 비정상 거래로 의심되는 패턴이 발견될 경우 사후 즉시 조사가 가능한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이상의 8단계 표준 흐름과 추가 절차는 IBK 금융일반 직무의 실제 일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며, 이 과정 전체가 한 사람의 영업력만이 아니라 본부 부서·외부 기관·자동화 시스템·내부통제 절차의 조화로 굴러간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McKinsey/Deloitte** — **책무구조도 시행 1년 ICFR 분석** — <https://www.deloitte.com/kr/ko/Industries/banking-capital-markets/perspectives/icfr-2025.html>
2. **PwC** — **조각투자·STO 시장 전망 분석** — <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understanding-fractional-investment-and-sto.html>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3.	삼정KPMG	—	부동산PF	주요이슈와	전			
	망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kr/pdf/2024/issue-monitor/kpmg-korea-real-estate-pf-20240424.pdf				
4.	금융감독원	—	2024년	국내은행	영업실적(KDI	계		
	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4325			
5.	금융감독원	—	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		
	정							
					https://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572			
6.	금융감독원	—		ROA·NIM	추이(e-나라지			
	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093			
7.	금융감독원	—	2025년	9월말	BIS	자본비율	현	
	황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4397		
8.	금융위원회	—	부동산PF 상황점검회의(2025.12.22)					
						https://www.fsc.go.kr/no010101/85924		
9.	금융위원회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10.	금융위원회	—	토권증권 STO 제도 개선					
						https://www.fsc.go.kr/no010101/79386		
11.	한국은행	—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한		
	강							
					https://www.bok.or.kr/portal/submain/submain/cbdc.do?menuNo=201136			
12.	한국은행	—		기준금리		추		
	이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13.	이데일리	—	4대	금융	3분기	실적	분	
	석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6025366642338168		
14.	EBN	—	4대	금융	NPL·역대	최대	실적	동
	행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5927		
15.	빅데이터뉴스	—	인뱅	3사	2025	상반기	실	
	적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50821171042228893cd542464_23		
16.	아시아경제	—	책무구조도	시행		1년	평	
	가							
						https://www.asiae.co.kr/article/2025122110240189581		
17.	법률신문	—	토권증권 STO	법안	정무위	통과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13783		
18.	머니투데이	—	은행권	연체율		8.5년만	최	
	고							
						https://www.mt.co.kr/amp/finance/2025/10/24/2025102316310035289		
19.	인사이트코리아	—	IBK	2025	연간실적	2.7조	사상	최
	대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14		

심층 분석 보고서: IBK기업은행-금융일반(서울/수도권)

20. 이지경제 — IBK 2025년 자산 500조 돌파·연간 순익 분석 — <https://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998>
21. 데일리안 — IBK 2025 실적·연체율 심층 분석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08036/>
22. 인베스트조선 — 장민영 신임 IBK 은행장 임명 —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1/22/2026012280221.html
23. 전자신문 — 장민영 행장 취임·300조 생산적금융 — <https://www.etnews.com/20260220000102>
24. 전자신문 — IBK 디지털뱅킹 리빌딩 1단계 착수 — <https://www.etnews.com/20260414000227>
25. 서울경제 — IBK 882억 부당대출 검찰 압수수색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RCQFTNAZ>
26. 인더뉴스 — 김성태 행장 2025 신년사 전문 — <https://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68102>
27. 굿모닝베트남 — IBK 베트남 100% 외국법인 인가 — <https://www.goodmorningvietnam.co.kr/news/article.html?no=81435>
28. IBK기업은행 공식 핵심가치 페이지 — <https://www.ibk.co.kr/common/navigation.ibk?linkUrl=/intro/announce/core.jsp&pageld=IR01040000>
29. 인크루트 RASP — IBK 직무소개 본부 직무군 — https://ibk.incruit.com/recruiter/duty_introduce.html
30. the bell — IBK KPI 1,000점 체계·교차판매 분석(국감 자료) —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0131351574680109550>
31. 딜사이트 — IBK vs 4대 시중은행 평균연봉 격차 분석 — <https://dealsite.co.kr/articles/119761>
32. 잡코리아 — IBK 전직 지점장 직무 인터뷰 — <https://www.jobkorea.co.kr/starter/interview/View/20249>